프리즘

월북작가작품은 왜 '추천도서'가 못되나

朴玄淑 도서출판 깊은샘 대표

요즈음은 입술이 부르터서 다닌다.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신경이 머리끝까지 곤두서서 고민을 해도 별 뾰족한 수가 나지 않는다. 책이 전혀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든다. "정치 잘못해 물가안정이 안돼니 누가 책 사보겠어." 엉뚱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에게까지 원망이 간다. 내 잘못 접어놓고, 내가 만든 책 안 사보는 국민은 수준 이하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나를 객관화시켜 바라보면 문제가 많다. 여지껏 난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맘먹은 책만 만들었다.

국문학사 정리한다는 '건방진' 각오로 월북작가 이태준, 박태원, 박노갑전집을 착수하였다. 그런데 너무하달 정도로 책이 안 팔린다. 제작비의 오분의 일도 못건졌다. 그 관계 모든 책이 다 그렇다. 맥이 빠지고, 내 각오가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내 식이었던가 자각하게 된다. 책은 시대상황에 따라 만들어야 하나보다. 시행착오로 치부하고 다시 그쪽에 손대는 것이 겁난다.

정부에서 월북작가 작품을 해금해 놓고도 청소년 추천도서나 기타 우수도서 선정에서도 제외시킨다.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이 담겨있어도 월북작가 책이니까 외면하고 출판사가 잘 해봐라 하는 식이다. 문화정책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다. 우린 우리것을 소중하게 못 느끼는 속성이 있나보다. 월북작가도 우리나라 작가이고 그들을 빼놓고는 30년대부터 6.25까지의 문학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 분단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 아픔도 우리의 것이다. 왜 그들은 우리들안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을까.

어느 책은 출판사의 참신한 기획으로 심혈을 기울여 책을 만들었는데 팔린 책이 겨우 30권이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남의 책 모방하여 출판하면 그보다는 나으리라는 기대로, 어느 책이 잘 팔린다면 무조건 유사한 책 유사한 제목 붙여 출판한다. 모사품은 그렇게 나오고 그런 악순환은 계속된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독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책 만들고도 출판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은 꿈같은 이야기일까. 하도 답답하다 보니 퇴폐적이어도 좋으니 잘 팔리는 책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6월 10일까지 「출판저널」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4호(6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독자중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1

조선조 선조때의 문장가 白湖 林悌는 몇 안되는 한국의 기인으로 그 호방한 기개가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조는 그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길에 한 여인의 무덤에 들러 읊은 작품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① 寒雨
② 黃眞伊
③ 桂月香
④ 明玉

문제2

소설가 李箱의 작품 「날개」는 그가 한때 동거했던 여인과의 자전적 이야기가 주조음으로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상이 휴양차 황해도 白川온천에 갔다가 만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① 錦紅
② 東琳
③ 玉姬
④ 權順姬

문제3

연구자들은 프랑스시인 보들레르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친 여인들로 세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각각 '검은 비너스, 혹은 지옥의 애인' '가을의 연인, 혹은 지상의 애인' '흰 비너스, 혹은 천상의 애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중 검은 비너스로 일컬어지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① 잔느 뒤발
② 마리 도브렁
③ 사바티에 부인

제60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0호(4월2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36통, 이중 정답자는 1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1

② 위성도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상상의 공단도시 은강,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성남시, 「원미동 사람들」은 부천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문제2

① 만주

문제3

③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시장과 전장」은 6 · 25 직전의 황해도 연안 장터의 사람을 보여준다. 많은 응답자들이 정답으로 지적한 ② 현진건의 「벙어리삼룡이」는 1920년대 남대문 밖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역시 서울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당첨자

안지민(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민영 Apt. P동 304호)
이태문(서울 구로구 구로4동 766-56 25통3반)
최정숙(서울 동작구 사당1동 436-2)
문명자(서울 강서구 둔촌동 523-24)
이인숙(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177)

출판저널

통권 제62호/1990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 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 · 광고——李羲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진식자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자문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濬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曺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 · 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